

# 양안결혼(兩岸結婚)과 대륙배우자의 등장: 이주시 기별 분화를 중심으로\*

문경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본 연구는 양안결혼이주를 양안관계의 역사와 결혼이주자들의 이주 경험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양안결혼(cross-strait marriage)이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혼이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1987년 대만-중국 간 교류(양안교류)의 개방과 함께 등장하였다. 양안결혼의 역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양안교류의 맥락에서 양안결혼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은 양안결혼의 일부 맥락에 국한되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양안결혼의 역사 속에서 경험과 연령에 따라 다른 이주 배경과 결혼 유형을 겪은 '대륙배우자'들이 분화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초기 양안결혼은 대만의 퇴역군인들과 재혼 이상의 대륙배우자들의 결합으로 동향혼의 특징을 지닌다. 중기 양안결혼은 1992년 양안교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후 중국으로 진출한 대만상인이나 대만간부들이 여성노동자와 만나는 연애혼의 특징을 지닌다. '새로운' 양안결혼은 중국인들의 해외 진출과 연관이 있으며, 제3국에서 만나 연애혼을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분화 현상은 '대륙배우자'라 불리는 이 집단이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 집단이 아니며 이들의 이주 맥락과 가족 형태에 따라 적어도 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또한 이 양안결혼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결혼이주자 내에서 이주 배경에 따라 분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중국과 대만, 양안결혼, 결혼이주, 분화, 대륙배우자

##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결혼이주를 해 온 이주자들의 이주 동기와 결혼 생활을 통해 중국-대만 간 결혼의 역사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역사를 고찰하는 일은 한 집단으로 범주화된 이주자 집단이 실제로는 이주 동기와 결혼 생활에 따라 여러 경향성을 지님을 가정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에 역사

\* 본 논문은 필자의 2019년도 박사학위 논문 “아래로부터의 양안(兩岸)관계: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의 정치”의 현지조사 자료를 활용·보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을 도입함으로써 결혼이주자들의 목적지와 출신지의 관계 흐름이 결혼이주자들의 삶과 이주 경험 속에서 드러남을 알아보려 한다.

이주자들은 경계를 넘을 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간직한 채 목적국으로 향한다. 특히 결혼이주의 경우 법-제도상으로 목적국에서 결혼을 하여 정착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자들은 출신국 문화 배경은 차치하고 목적국의 문화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당했다. 이에 결혼이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자들의 출신 문화 배경은 매우 중요하며, 이주 동기 또한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주장해 왔다(김현미, 2006; 김현미 외, 2008; 김혜순, 2014; 문경연, 2011; 박미정 외, 2015; 이용승, 2014; 이해웅, 2014; 이희영, 2012; 한건수, 2006).

또한 이러한 결혼이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특징을 더 강조해 왔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주로 이주의 방식으로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이주의 젠더적 측면들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결혼이주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의 한 현상(김현미, 2006; 정현주, 2008; Oishi, 2008)임을 인식하고, 이 결혼이주의 특징으로 목적국(수용국)의 남성과 출신국의 여성을 연결하는 중개업과 상업화된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결혼이주로 인한 목적국 내에서의 새로운 젠더, 부부, 가족관계의 협상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설동훈 외, 2006; 이해경 외, 2006; 한건수, 2006).

두 번째 특징은 결혼이주의 지역화 현상이다. 그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출신국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시아 내에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으로 중국 본토나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증가했다(Constable, 2005; Palriwala and Uberoi, 2008; Lu and Yang, 2010). 이러한 아시아 결혼이주 지형도의 변화는 이주 노동 수용 조건이 유난히 까다로운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 등)로 이주하기 위해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이주 통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김현미, 2006).

이렇게 젠더화되고 지역화된 아시아의 결혼이주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유발하는 동인과 구조를 밝혀내려는 경향(Sassen, 2002; Yeoh and

Willis, 2005)이나 미시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행위성(agency)을 부각시키면서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다양한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과 이들의 의식 변화 등(Constable 2005, 정현주, 2008)을 봐 왔다. 이 두 차원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을 넘어서 '중범위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파레나스, 2009). 즉, '국경을 넘는' 결혼이주에 '초국가적'이라는 용어를 붙임으로써, 이주자가 출신국과 목적국을 연결하며 두 사회에 모두 영향을 끼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가 동시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을 전제한 채 이주자의 문화 배경의 변화에 출신국과 목적국의 관계와 역사가 영향을 미침을 소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목적국의 국민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이주자 집단은 '결혼이주자'로 단일하게 호명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결혼이주의 시간과 역사가 길어져 이주자들이 많아지며 이 집단 속에는 개개인의 다른 기억과 시간이 중첩되어 왔다. 또한 이주자 개개인의 기억과 시간과 경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출신국과 목적국의 관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이주자들 개인의 이주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신국과 목적국의 관계에 대한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 대만에서 일어난 결혼이주(이후 중국-대만 결혼이주)이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항복 이후 중국대륙은 사상의 차이로 4년 동안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게 된다(이후 국공내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섬은 중화민국의 영토로 귀속되었지만 국공내전을 직접적으로 치루지 않았다. 1949년 중화민국의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 중화민국의 마지막 영토였던 대만섬으로 피난했고 이 대만섬에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여러 집단이 중국대륙과의 교류를 끊은 채 생활하게 되었다. 예컨대, 대만 밖에서 살다 전쟁의 기억을 안고 대만으로 이주해 왔지만 일본지배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만성 밖의 외성인(外省人)과 일본지배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고국을 새롭게 만나게 된 대만성 안 출신이라는 본성인(本省人)과 한인들의 이주 이전부터 대만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原住民)이 아이러니하게 대만이라는 섬에 함께 살게 된 것이다.<sup>1</sup>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중국대

<sup>1</sup> 현 대만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인(漢人)들은 대부분 중국대륙에서 건너왔지만, 1895~

륙과의 관계가 점점 열리면서 국공내전의 기억은 있지만 사회주의만을 경험한 결혼이주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중국-대만 결혼이주에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정치적으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중국-대만 간 결혼을 국제결혼이 아닌 양안결혼(兩岸結婚)으로 부르고 있다. 이 양안결혼으로 대만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대륙배우자(大陸配偶)라고 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중국배우자(中國配偶)라고 부르는 언론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대륙배우자다. 또한 대륙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대만배우자(臺灣配偶)라고 부른다.

대만의 이민정책상, '대륙배우자'는 중국과 대만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주자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주자는 외국배우자(外國配偶)라 불리며 이민법 23조와 국적법 3조를 적용해 대만 거주 최소 4년 후에 대만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대륙배우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륙지구와 대만지구의 인민관계조례(大陸地區與台灣地區人民關係條例, 이후 양안조례) 17조에 따라 2009년부터 대만 거주 최소 6년 후에 대만 신분증(身分證, National ID)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에서 인구 유입을 관리하는 기구인 이민서(National Immigration Agency)의 2020년 4월 통계에 따르면, 198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수는 약 56만 명이며, 이는 전체 대만 인구의 약 2.4%에 해당한다. 결혼이주자 수는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나뉘어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중국대륙 출신 결혼이주자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만의 결혼이주자들은 대륙배우자나 외국배우자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여성이주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연구에서는 대륙배우자의 약 95%가 여성인 만큼 주로 여성대륙배우자들과 그 남편들의

1945년의 일본 지배를 겪었느냐에 따라 대만성 밖 출신이라는 외성인, 대만성 안 출신이라는 본성인(本省人)으로 나뉘어 불린다. 한인들의 이주 이전부터 대만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原住民)은 약 2%이며 한인들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중국대륙'에 갖는 상상과 인식들은 매우 다르며, 이 상상과 인식들은 본고의 논의와는 별개로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표 1 대만의 결혼이주자 통계(1987. 1~2020. 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배우자			합계 (명)
중국 대륙			홍콩과 마카오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9,154	331,042	350,196	7,647	10,394	18,041	22,287	170,093	192,380	560,617

출처: 이민서 홈페이지(검색일: 2020. 5. 20).

경험에 근거해 분석하려고 한다.<sup>2</sup> 연구자는 이 대륙배우자들을 연구하기 위해 2014~2015년 2년여 간 대만 타이베이(臺北)시에 거주하면서 대륙배우자들을 돕는 NGO단체와 타이베이시정부, 대륙배우자들이 직접 만든 조직들을 방문하여 연구 동의를 구했다. 이때 만난 대륙배우자들의 연령은 20~70대로 다양했으며, 대륙배우자들의 출신지역도 중국 전역일 만큼 다양했다. 인터뷰를 통해 약 70여 명의 대륙배우자의 생애사를 수집하면서 연구자는 이들의 공통점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했다’는 것일 뿐, 중국에서 살아온 경험, 대만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 그리고 대만에서 이루는 가족의 형태가 중국-대만 관계의 분기점, 중국의 역사, 대만의 정책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출신지역의 공통점으로 모인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어느 시대를 경험했으며, 어떻게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대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대륙배우자의 조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공통된 경험과 기억’이 양안결혼과 대륙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중 주로 약 10명의 대륙배우자와 그들과 결혼한 대만배우자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은 첫째, 대륙배우자는 어떤 경로로 대만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둘째, 대만으로 이주하기 전 중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셋째, 대만배우자는 대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넷째, 대만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 가고 있는가이다.

<sup>2</sup> 남성대륙배우자들의 젠더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문경연(2019a)에 따르면, 남성대륙배우자들이 대만에 건너오게 된 시기는 후술할 중기 양안결혼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남성대륙배우자들이 초기 여성대륙배우자들에게 느끼는 소외감은 후에 남성대륙배우자들이 모이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곤 한다.

## II. 양안결혼에 영향을 미친 격동의 양안관계

대만과 중국을 지칭하는 양안관계(兩岸關係, 이후 양안)는 원래 대만섬과 중국대륙 사이 폭 180km에 달하는 대만해협양안(臺灣海峽兩岸)의 준말이지만, 1949년 국공내전으로 ‘중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역사·정치적인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분단이 된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중화민국(ROC, Taiwan)의 정치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게 된 것이다. 그 후 1987년까지 양안관계는 교류 없이 서로 적대화의 길을 겪게 된다.

양안결혼이 가시화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교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였다. 이후 양안결혼의 제도 변화 시기에 따라 1) 양안결혼이 막 시작된 시기로서 국가가 양안결혼 전수를 관리하던 1987~1992년, 2) 양안조례의 제정으로 양안결혼이 합법화된 1992~2000년, 3) ‘대만’을 국가화하려는 민진당의 정권교체가 시작된 2000~2003년, 4) 면담 제도가 도입된 2004~2009년, 5) 대륙배우자의 대만신분증 연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게 된 2009~2016년, 6) 민진당의 재집권한 2016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문경연, 2019b: 61). 이렇게 시기를 나누게 된 것은 대만의 국가정체성 변화, 그리고 ‘중국’과 ‘중국에서 온 이주자’에 대한 대만 정부의 인식 변화, 마지막으로 양안조례의 개정과 수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인 1987~1992년은 ‘6개월은 대만에서, 6개월은 중국에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시 대만 정부는 양안 교류는 개방하였지만, 양안결혼은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았고 양안결혼 전수를 정부가 관리했다. 임시방편으로 대륙배우자에 대한 정책을 ‘대륙배우자 반년은 대만에서, 반년은 대륙에서 생활(陸配半年在臺灣, 半年住大陸)’로 세웠다. 이 정책의 특징은 첫째, 6개월의 시한부 결혼 생활, 둘째, 대만을 나갈 때 꼭 필요한 왕복 비행기표와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 셋째, 대만 내에서 보장되지 못한 대륙배우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안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도 점차 양안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대만 정부는 더 이상 전체 대륙배우자의 ‘숫자’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늘어나는 양안결혼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안조례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시기는 양안조례가 만들어진 1992년부터 양안조례가 1차적으로 개정된 2000년까지다. 이때 양안결혼에 대한 모토는 ‘생활과 신분을 모두 엄격하게(生活及身分從嚴)’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이 통제는 첫째, 쿼터제를 통한 신분증 획득, 둘째, 여전히 건강권과 노동권의 제한으로 드러났다. 대만 정부가 전체 대륙배우자의 수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쿼터제를 두어 신분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였다. 1992년에는 전체 240명 쿼터였던 것이 매년 300명, 600명, 1080명, 2000년에는 3,600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신분증 발급 쿼터가 해마다 늘어났음에도 매년 들어오는 대륙배우자의 수는 더욱 증가했고 신분증 발급에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대륙배우자들은 계속 기다려야 했고 건강권과 노동권이 없었기에 비싼 의료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후 민진당의 집권 1기(2000~2003년)의 시작으로 대륙배우자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세 번째 시기로 전환되게 되었다. 정권을 잡은 민진당의 가장 큰 숙제는 국민당 독재의 잔재인 ‘대만의 중(화민)국화’를 빨리 제거하고,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대만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했으며, 중국 출신이자 대만과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륙배우자를 대만 사회 내에서 ‘타자’로 만드는 일이 필요했다. 민진당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대륙배우자의 대만 내 체류기한을 제도화하는 일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대륙배우자가 대만에 들어올 때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만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대만 신분증을 얻은 후에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은 이 정책의 모토인 ‘생활은 편하게, 신분은 엄격하게(生活從寬, 身分從嚴)’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정책의 특징은 투 트랙 시스템(雙軌制, Two Track System)을 도입하여 쿼터제의 순서를 무기한 기다려야만 했던 대륙배우자들에게 정책의 기획과는 다르게 ‘대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노동권과 건강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며,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2003년에는 대만 내 대륙배우자의 수가 약 20만 명에 가깝게 되었다. 이렇게 늘어나는 대륙배우자의 수는 오히려 당시 대만 사회에 부담을 주었고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륙배우자의 대만 진입을 막게 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면담 제도를 도입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로 대만의 공항에서 대륙배우자와 대만배우자에 대한 면담 제도와 지문 날인제도를 신설해 대륙배우자의 대만 진입을 제한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대륙배우자들을 가려내겠다는 미명하에 이미 들어온 대륙배우자들을 아예 비행기로 돌려보내는 일을 자행했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뚜렷했던 외국배우자가 각 나라의 대만대표부를 통해 대만 밖에서 ‘비자발급’으로 결혼허락이 가능했던 반면, 대륙배우자들은 중국 안에 대만대표부가 없으므로 이 공항에서의 면담이 거절되면 바로 다음 비행기로 나가야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다음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면담 제도나 쿼터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후 양안결혼에 대한 제도는 중국에 대한 태도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한눈에 대비될 정도로 바뀌었다. 2009년의 국민당 정부는 다시 양안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대륙배우자쿼터제를 폐지하고 노동권과 건강권도 대만에 들어올 당시부터 보장하면서 대륙배우자의 대만 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 투 트랙 시스템을 원 트랙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신분증 획득 연한도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역시 외국배우자와 동일한 4년은 아니었으며, 이 구분된 제도에는 중국이라는 이주자들의 배경을 버리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만 사회의 고려가 작용했다.

2016년 다시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며 ‘탈중국화’가 시작되고 6번째의 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가시화된 변화는 대륙배우자들의 희망이었던 외국배우자와의 동일한 신분증 획득 기한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었다. 오히려 앞으로 대륙배우자는 대만 신분증을 획득할 때 ‘국민의무권리상식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완벽하게 ‘대만의 민주’를 알아야 대만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대륙배우자들의 희망은 더욱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양안결혼에 대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알아보는 일은 양안관계와 양안결혼을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위’로부터 바라보는 접근이다. 이 서술에서의 대륙배우자는 매우 일원화되어 정책에서 관리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직은 완전히 대만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타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미 30만이 넘고,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륙배우자 집단 안에는 연령과 출신 지역 등의 다양성이

드러나며 언제 어떤 제도의 시기에 대만으로 이주해 왔느냐의 이주경험과 어떤 결혼의 유형을 거쳤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이후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제도적 변화 시기에 따른 구분이라는 ‘위로부터의 관점’ 이외에, 대륙배우자들이 대만으로 오게 된 동기와 결혼 유형에 따라 대만의 안팎에서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아래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초기 양안결혼: 퇴역군인(통민)과 대륙배우자의 동향혼

양안결혼이 가시화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교류가 시작된 1987년부터이다. 이때 나타난 양안결혼의 특징은 대부분 1949년 내전 당시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 군인 출신의 외성인과 중국대륙 출신의 배우자 간 혼인이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결혼유형을 ‘초기 양안결혼’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러한 결혼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이미 고령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 2016년 초기 양안결혼 대륙배우자의 수는 약 1만 2,000명으로 추산한다.<sup>3</sup>

1949년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망할 때, 국민당과 함께 건너온 외성인들은 중국에 고향과 친척을 남겨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대륙에 고향을 둔 이 외성인들은 1987년 양안개방이 일어날 때까지 약 40여 년 간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된다. 1987년 약 40년 만에 고향을 찾은 외성인들 중에는 혈혈단신으로 대만에 건너온 군인 출신들이 많았다. 이 60만 명의 국민당 퇴역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영예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의 통민(榮民, 이후 롱민)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대개 부인을 남겨 두고 왔거나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시 국민당 군대에 금혼령(禁婚令)<sup>4</sup>이 있었고, 대만 사람들 중에는 롱민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

<sup>3</sup> 이명을 위한 이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전해 들은 대략적인 수치이며, 전체 대륙배우자의 약 4.5%에 해당한다.

<sup>4</sup> 김미란(2010)과 Lu(2012)에 따르면, 국민당은 타이베이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언제든지 중국대륙을 공격할 태세로 비상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당의 군인들에게는 금혼령이 내려졌다. 1956년이 되어서야 28세 이상의 장교에게 결혼이 허락되었고, 사병은 1958년 결혼연령을 28세로 제한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룡민들은 양안개방 이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고자 했으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고향 출신의 반려자를 찾기도 했다. 다음은 대륙배우자와 재혼한 황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례 1] 대만배우자 황 할아버지 인터뷰(남, 80대, 1990년대 재혼)

나는 난징(南京)에서 출생했는데, 2~3살 때 원래 본적지인 후난(湖南)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다 공산당을 피해서 1949년 대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일 전쟁 중에 전사하시고 나는 (군사)학교의 소년병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따라 혼자 대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을 후난에 놔두고 왔지요. 그리고 30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만이 개방하기 전,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1970년대 후반에 미국, 홍콩을 거쳐 대륙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남동생, 여동생이 고향에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프고 또 기쁘던지... 당시 대륙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전제품과 텔레비전을 사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다녀오면, 대만 정부에서는 대륙을 왜 갔는지 정말 끈질기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양안개방 전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개방 후에는 고향 후난과 대만을 오가는 국수 면발 장사를 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지 오래되어 외롭더라고요.

황 할아버지는 룡민 출신으로 1949년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홍콩과의 부분적 교류를 시작할 때 그 통로로 고향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다. 당시 고향까지 바로 가는 경로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경유해 고향으로 가곤 했다.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들어오면, 중국 대륙을 왜 다녀온 것인가에 대한 조사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어렵게 다시 찾은 고향을 1987년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해 준 일은 황 할아버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대만에 갈 당시 소년병이었던 황 할아버지는 금혼령에 걸려 서른 살 가까이까지 결혼할 수 없었다. 서른 살 남짓 만난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이 늦어졌던 것은 비단 금혼령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 할아버지가 중국 후난성 출신의 단신(單身) 군인이라 처가에서 결혼을 반대했었다. [사례 2]의 대만

였다. 이 제도는 1974년까지 지속되었다.

배우자 라오 할아버지도 ‘외성인’이라는 벽에 부딪혀 결국 이런 출신을 개의치 않는 대만의 원주민과 첫 번째 결혼을 했다.

[사례 2] 대만배우자 라오 할아버지(남, 80대, 2003년 재혼)

나는 안휘(安徽)사람이야. 국민당 육군 보병이었어. 열여섯 살에 혼자 가오슝(高雄)으로 왔지. 학교 성적이 좋아 국민당에 입당할 수 있었어. 내가 장제스(蔣介石)를 좋아하기도 했고. 군대에 이십 몇 년 있었는데, 퇴역하고서야 결혼할 수 있었지. 내가 팔십이 넘었는데, 내 큰딸이 삼십 몇 살밖에 안 됐어. 결혼이 늦었지. 내 첫 부인은 우라이(烏來)<sup>5</sup>의 아메이족(阿美族)<sup>6</sup>이었어. 그땐 늙은 외성인 군인에게 딸을 아무도 주려고 하지 않았지. 첫 부인하고 이혼하고, 지금 아내는 대륙 구이저우(貴州)에서 만나 결혼했어.

라오 할아버지 역시 룡민이었으며 마흔이 넘어 퇴역했다. 금혼령은 사라졌지만, 결혼 시기를 훌쩍 넘겼고 대륙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혼자 사는 퇴역군인에게 흔쾌히 딸을 내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라오 할아버지는 퇴역한 이후 겨우 아메이족 여인을 만나 세 딸을 낳았지만, 성격과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라오 할아버지는 양안개방이 되자마자 안휘성 고향을 찾았으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고 남동생도 사망한 이후였다. 누나와 여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지라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 후로 고향에는 자주 가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게 되면서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아는 구이저우성 출신 룡민이 자신의 친척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때 구이양(貴陽)시에 가서 대륙배우자 아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초기 양안결혼에서 대만의 남성들이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나 친구의 소개로 대륙 여성들을 만나게 됐다고 회상한다면, 대륙 여성들은 대만 남성들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 생활 습관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만으로의 이주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사례 3]의 장 할머니는

<sup>5</sup> 신베이시의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 온천이 유명하며 원주민 마을로도 유명하다.

<sup>6</sup> 대만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1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가장 인구가 많기도 하다. 주로 대만 동부 화리엔에 거주한다(왕즈홍 외, 2017).

1991년 고향에 다시 올 때까지 40여 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남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중매인이었던 남편 여동생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아무리 낯선 대만이라도 남편이 같은 쓰촨(四川)성 사람이라 생활 습관이 비슷하리라는 생각에서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3] 대륙배우자 장 할머니(여, 70대, 쓰촨성, 1990년대 결혼, 2000년대 대만 이주)  
나는 원래 재혼 생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너무 오래 병마에 있기도 했고, 나도 자궁근종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 중국에 와서 간절히 결혼을 바라기도 했고, 상하이에서 혈혈단신으로 대만으로 건너간 지금 남편의 인생사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대만에서 계속 홀로 가족을 그리며 살아왔고, 친척방문(探親)이 허락되어서야 형제 친척들을 찾을 수 있었죠. 또 우리는 같은 쓰촨성(四川省) 출신이라는 것도 제게 크게 와 닿았어요.

장 할머니의 남편은 2014년 인터뷰 당시 91세로 중풍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sup>7</sup> 장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와 동향인 쓰촨성 사람으로 1948년 상하이에서 국민당 군인으로 징집당했는데, 국민당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대만으로 원치 않게 오게 된 것이었다. 그는 1991년 다시 홍콩을 거쳐 친척방문을 할 때까지 무려 43년을 홀로 살아왔다.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다 여동생의 소개로 장 할머니를 만나 1992년 결혼하게 된 것이다. 장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재혼이었다. 위암에 걸린 첫 번째 남편을 오랫동안 수발했고, 자신 또한 몸이 좋지 않았기에 남편이 운명한 뒤에도 9년 동안 재혼하지 않았다. 그동안 아들들은 모두 장성해 새로운 가정을 꾸려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고, 남편도 다른 가족 없이 혼자였기에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들들도 재혼하기를 바랐고, 중매인인 남편의 사촌 여동생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다. 또 동향 사람이기에 음식이나 방언 등을 나눌 수 있어 낯선 대만에 가도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대륙배우자 동 할머니는 양안결혼이 시작된 계기가 대만에서 홀로 살아온 룡민들의 반려자를 찾으려는 노력과 대만에 가고 싶어 하는 대륙배우자들의 동기

<sup>7</sup> 2018년 9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가 서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동기란 생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같은 고향의 사람과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 4] 대륙배우자 동 할머니(여, 60대, 허난성, 1999년 결혼, 2000년 대만 이주)  
 개방을 처음 해서 양안결혼이 시작되었을 때... 왜 그럼 개방을 하게 되었나? 대만의 룡민이 있지 않은가? 그들 중에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대륙이 그리기도 하고, 대륙에서 아내를 얻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어떤 노병(老兵)은 집도 없고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었다. 또한 대륙사람들도 대만으로 결혼하러 오고 싶어 했다. 어쨌든 대만은 부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奮強)하지 않은가!

초기 양안결혼 대륙배우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다(王偉男·張賢樺, 2017). 50대 이상의 대륙배우자들은 중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말까지 대만으로 건너왔으며 룡민과 결혼한 경우가 많다. 룡민이 대륙의 친척을 방문했을 때, 고향의 친척이나 친구에게 대륙배우자를 소개받으며 결혼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사례 1]의 황 할아버지나 [사례 2]의 라오 할아버지처럼 재혼인 룡민들도 있지만 [사례 3]의 장 할머니 남편처럼 초혼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기 양안결혼 대륙배우자들은 대부분 재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룡민과 대륙배우자와의 만남의 결과는 ‘돌봄 교환의 전략(a strategy of care exchange)’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Lu, 2012). 루(Lu)에 따르면, 중국의 맥락에서 돌봄은 양(養)이라 부르며, 부모와 자식 간에 불균형적 호혜성을 갖는다. 즉,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담당하며 자식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봉양(奉養)을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생물학적 부모-자식 사이뿐 아니라 양 부모-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대만 정부는 룡민을 영예로운 국민으로 받들며 국가 차원에서의 보살핌을 시행해 왔지만, 이는 룡민의 일상이나 감정 생활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다. 룡민은 그동안 거의 친척이 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돌봄’을 그리워했다. 룡민들은 ‘나’를 돌봐 주고, ‘나’를 봉양해 줄 사람들로 대륙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을 받아들였고, 대륙배우자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이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룡민은 대륙배우자가 대만에 살 수 있

도록 거처와 신분을 제공해 줬다. 이 ‘외로운’<sup>8</sup> 두 부부의 만남은 누가 누구의 지배/복종 관계가 아니라 친족 연망(kinship network)의 부재로 일어나며, 돌봄은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가족을 떠나 대만에서 룡민과 단들이 사는 대륙배우자의 삶은 매우 외롭다(Lu, 2012; 王偉男·張賢樞, 2017). 대륙의 자녀나 손자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대륙배우자는 ‘천륜이 그리워(好懷念天倫)’ 대륙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지만, 대만에 오래 살아 대만에서의 삶이 익숙한 대륙배우자들은 중국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간혹 이 ‘돌봄 교환’ 부부 사이에도 친밀감이나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황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를 룡민과 대륙배우자 간의 ‘감정교류(感情交流)’라 표현한다. 황 할아버지에 따르면, 대륙배우자는 룡민과 20~30세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병든 룡민을 잘 돌봐 주기 때문에 룡민들은 이 대륙배우자들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한다. 대륙배우자는 룡민에게 은혜를 갚을 겹 룡민에게 더 잘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5년 5월 4일 『중국시보』<sup>9</sup>에 실린 대륙배우자 A씨와 룡민 런씨 부부의 사랑 이야기도 그러하다. 타오위엔에서 모범 신이민(新移民)<sup>10</sup>으로 선출된 43세의 대륙배우자 A씨와 96세의 룡민 런씨는 1989년 광저우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광둥 중산대학을 다니며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런씨가 친척 방문을 위해 그 호텔에 머무르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그들이 같은 ‘후난성’ 출신이라는 것이 인연을 잇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주로 편지를 통해 인연을 이어 나갔다. 가족들은 이러한 ‘할아버지-손녀의 사랑(爺孫

<sup>8</sup> 대륙배우자의 친척 초청은 70세 이상의 대륙배우자의 노부모와 20세 미만의 대륙배우자의 전혼 자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Lu(2012)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sup>9</sup> 2015년 5월 4일 『중국시보』 「差53歲爺孫戀…外配顧夫獲模範母親」(검색일: 2019. 12. 4).

<sup>10</sup> 신이민(新移民)은 신주민(新住民)과 함께 통용되며, 원주민, 외성인, 본성인 등 이전에 대만으로 이민해 온 사람 이외에 새롭게 이민해 온 사람을 뜻한다. 신베이시에서는 ‘신이민’의 용어 안의 ‘이민’이 아직도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주민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제는 신주민이 대만 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대만 사회의 이미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초, 이민서에서도 외국인배우자지원지도기금(外籍配偶照顧輔導基金)을 신주민발전기금(新住民發展基金)으로 개명하면서, 신주민을 더 선호해 사용하고 있다([https://ifi.immigration.gov.tw/ct.asp?xItem=289&ctNode=36461&mp=ifi\\_zh](https://ifi.immigration.gov.tw/ct.asp?xItem=289&ctNode=36461&mp=ifi_zh) 참조, 검색일: 2019. 12. 5).

戀)을 극렬히 반대했고, A씨는 결국 가족들 몰래 1999년 대만행 비행기를 탔다. 런씨는 1980년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이 있지만, A씨와의 사이에서 2011년 아들을 얻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런씨의 퇴직금인 1만 4,000NTD(한화 약 56만 원)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으며, A씨는 엔지니어로 일하며 2만 NTD(한화 약 80만 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A씨가 런씨를 물심양면으로 간호하고 있어 ‘모범 신이민’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런씨 부부는 예외적으로 아들을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초기 양안결혼에서 룡민들은 대륙배우자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기대하지 않는다. 룡민들이 금혼령 때문에 30~40년간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대륙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이미 60~70대의 고령이었고, 배우자들도 이미 나이가 있고 중국에 두고 온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새로 갖는 대신 배우자의 전혼자녀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향이 강하다. 룡민들은 또한 대륙배우자들이 자신의 노년을 함께해주는 대가로 중국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돌봄의 교환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며 친밀성이 생기기기도 한다.

초기 양안결혼 부부들의 친밀성 바탕에는 같은 고향이라는 친근함과 언젠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룡민들은 대만 내에서 국가의 부조로 어렵지 않게 살아왔지만 대만 사회 내 이주자로서 대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동향의 대륙배우자들은 이 꿈을 함께 꾸고 있었다. 예컨대 허베이성이 고향인 아화 할머니(60대)와 남편(작고)은 결혼 후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고향을 함께 다니며 정이 깊어졌다. 특히 독신이었던 남편은 고향을 함께 공유한 아화 할머니의 아들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남편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 대만에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될지라도 아화는 대만이 낯설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허베이 사람 두 명이 허베이 음식과 허베이 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은 타이베이시 허베이성 동향회에도 출석하고 있었기에 아화 할머니는 남편을 함께 부축하며 허베이성 동향회 사람들과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남편과의 동향회 활동은 후에 아화 할머니가 여러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아스 할머니(60대)의 남편(80대)은 후베이성 출신이지만 후베이성에 이제 남은 친척이 없기에 아스의 고향인 광시성을 자신의 고향처럼 여기며, 아스 할머니의 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면서 아스 할머니의 고향 방문을 더 기다리기도 했다. 아스 할머니의 남편은 대륙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아스 할머니가 대만 생활을 무료하게 여길까봐 아스 할머니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년 중에 2달은 꼭 함께 대륙 생활을 하곤 했다. 이에 아스 할머니는 남편이 고마워서 남편의 건강이 악화된 뒤에는 병간호를 자청했다.

이러한 초기 양안결혼 부부들은 ‘중국’이라는 고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대륙과 대만이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003년까지는 제도적으로 대륙배우자들이 대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기 양안결혼 부부들이 대만과 대륙으로 떨어져 살거나 롱민들이 대륙을 자주 방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정된 이후에도 롱민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부들은 중국대륙과 대만을 번갈아가며 생활하고 있다. 두 부부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대만의 더운 여름을 피해 대륙에서 3달가량 머물다가 이후에는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만에서 거주한다. 또한 초기 양안결혼에서 거주권이나 노동권 건강권 등을 제한하고 ‘양안’이 한 가족임을 반대하는 민진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향이 강하며 롱민들의 단체나 동향회와 연합해 조직화하는 경향도 강하다.

동향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이제 고령이 되어 양안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사와 이주사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중화민국/대만에서의 군대문화, 양안관계 등이 함께 담겨 있다. 비단 할머니(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려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에서는 기존의 결혼이주 관점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주자들의 생애에 담긴 역사와 ‘고향을 공유한’ 동향혼이라는 점과 재생산이 아닌 특수한 인척 관계와 돌봄이 일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담지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반부터 양안개방이 제도화되면서 비단 롱민들의 고향 방문 이외에도 외성인과 본성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싼 노동력과 큰 규모의 시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거 관찰된다. 이 흐름 속에서 대만의 자본뿐 아니라 대만 사람들도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초기 롱민 할아버지와 대륙배우

자 할머니들과는 다른 형태의 결혼이주가 등장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결혼의 형태를 ‘중기 양안결혼’이라 칭하며, 중기 양안결혼이주자들의 이주 동기 와 결혼 형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IV. 중기 양안결혼: 대만 상인(타이상)과 대륙배우자의 연애혼

중기 양안결혼은 1990년대 양안개방의 진행과 더불어 등장하였으며, 초기 양안결혼과 가장 큰 차이는 대부분 중국에 투자 목적으로 건너온 대만 상인(臺商, 이후 타이상)<sup>11</sup>과 대륙배우자가 연애결혼을 했다는 점이다. 양안개방 후, 대륙 출신 외성인들은 고향을 방문하면서 ‘가난하지만 가능성 많은’ 고향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1992년 양안조례의 제정으로 대만 정부가 중국 투자를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중국에서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대만과 홍콩 및 해외 화교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대만의 본성인들도 대륙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대륙 시장에 뛰어들 본성인과 외성인 대만 사업가들을 모두 통칭하여 타이상이라 부른다. 타이상들의 중국 투자는 당시 대만 내 침체된 경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Shen, 2005).<sup>12</sup>

<sup>11</sup> 중국에서 타이상은 대체로 기업가와 소기업가, 타이간(臺幹, 대만 간부)이라 불리는 중간 관리자, 개별 사업자, 또한 이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통용된다(김미란, 2013; Momesso and Lee, 2017). 김운태(2016)에 따르면 상해 지역을 포함한 장강 삼각주 지역에 사는 대만인들만 해도 중국 측 통계로는 20~30만 명, 대만 측은 35~40만 명으로 추정된다.

<sup>12</sup> 1990년대 초, 대만 정부는 당시 대만 내 오르는 임금을 해결하고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도로 새로운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의 동시에 개척하려 했다. 그런데 1994년 대만의 기업이 대규모로 대륙 진출을 시도하자 리덩휘 정권은 대만 본토 산업이 공동화될 것을 우려하여 남진정책(南進政策, 남향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주요투자대상으로 삼았으나 1998년 이후 그 투자대상을 대부분의 동맹국가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자 1999년 이를 철회하고 중국시장 투자로 회귀했다. 천광성(2003)에 따르면, 이는 중국대륙에 대한 견제책이자 대만 스스로 자신을 남방문화권이라 규정하고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해양중심 문화권의 중심이 되고자 한 이데올로기적 정책이다. 김미란(2010)은 이러한 남진정책으로 대만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가 많이 이주했으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결혼생활이 오래가지 않은 부부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대만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중국대륙 출신 이주자들을 선호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타이상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둥성, 푸지엔성, 상하이시 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광둥성의 선전(深圳)과 둥관(東莞)은 대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노동자로 일하던 많은 대륙배우자들이 이곳에서 대만 사람들을 만났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래처에서 일하거나 회사나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음식점, 카페 등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만남이 중기 양안결혼의 시작이었다.

[사례 5] 대륙배우자 티엔티엔(여, 20대, 광둥성, 2009년 결혼 후 대만 이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선전에서 일했다. 선전은 젊은 도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옥신각신거리는 경우(鉤心斗角)가 많아 선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식당, 방문판매업 등 밤낮으로 일했다. 이 두 업종은 돈을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보고 일했다(向錢看). 우리 언니는 미국계 회사에서 일했고 나도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내 성격상 공장에서는 일하지 못하겠더라.

식당에서 일하면서 대만인과 홍콩인을 자주 마주쳤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만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만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항상 빈랑(檳榔)<sup>13</sup>을 물고, 사람을 욕했다. 특히 대만 할아버지들이 시장에서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곤 하였다. 내가 방금 말한 이 사람들은 주재원이나 나이 든 타이상들을 말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대만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엔지니어들이 많았다.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라 입으로만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후로 대만인에 대한 인상이 나아졌다.

티엔티엔은 광둥성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전에서 일하던 친언니를 따라 이주하게 되었다. 대만계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티엔티엔이 일하던 식당을 자주 찾았고, 당시 대만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편을 소개해 주어 남편을 알게 되었다. 티엔티엔이 남편을 만나기 전 식당에서 자주 본 타이상들의 모습은 빈랑을 씹어 까맣게 된 치아에 식당 직원들을 자주 괴롭히거나, 젊은 아가씨들과 식당이나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티엔티

<sup>13</sup> 빈랑나무의 열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맵고 쓰며 식상(食傷), 적취(積聚), 수종(水腫) 따위에 쓰이고 살충제로도 쓰인다. 대만에서는 남성들이 많이 씹으며, 오래 씹을수록 입 안이 까맣게 된다.

엔은 타이상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 물론 타이상들 중에서는 가족이 전부 함께 이주를 하여 중국대륙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티엔티엔이 자주 발견했던 모습은 대만에 가족들을 두고 ‘사업상 중국에 왔다’는 핑계를 대며, Shen(2005)에 따르면 싱글인 척(Situational Single)하며 대륙여성들을 희롱하는 ‘나이 든’ 타이상들이었다. 그러다 남편을 비롯한 젊은 대만 출신 엔지니어들을 만나면서 대만인에 대한 인상이 바뀌게 된다.

2001년에 대만에 온 아짜오(여, 40대)는 후베이성 출신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광둥성 동관의 품질인증회사에서 일하게 된 아짜오는 대만계 회사 품질관리부의 담당자였던 6살 연상인 남편을 업무상 만나게 되었다. 아짜오의 회사가 개최한 인증체계 설명회에 남편이 참가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아짜오는 남편의 성실함에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다. 결혼하려던 찰라 친정의 반대에 부딪혔다. 친정어머니는 ‘대만인들이 바람기가 있을 수 있다(花心)’며 걱정을 하셨다. 아짜오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중국 대륙의 드라마나 뉴스에는 ‘대만인은 중국에 투자 때문에 거주하는데 현지처나 첩을 반드시 둔다’며 비판적으로 거론되곤 하였다. 아짜오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 동관에 한번 와서 직접 예비사위를 만나 보라고 하였다. 어머니도 남편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결국엔 결혼을 허락하였다.

2014년 인터뷰 당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새댁이었던 아홍(여, 20대, 광둥성)도 동관의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편 K와 결혼할 때, 친정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남편은 아홍보다 10살이 더 많았는데 친정 부모님 생각에 남자가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면 대만에 분명 본부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뿐만 아니라, 대만이 너무 먼 곳이라 딸을 멀리까지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다. 아홍은 결혼을 허락 받기 위해 남편을 친정으로 자주 데려가는 등 노력했지만 친정어머니는 결혼 직전까지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아짜오와 아홍의 사례에서 보듯 고향을 떠나 선전이나 동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대륙배우자들과 ‘낯선’ 대만 남자의 만남은 대륙배우자의 친정 가족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대륙배우자의 친정 가족들은 ‘타이상’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나 매체 보도를 접하며 쉽게 결혼을 허락하지 못했다. 대만에 대한 ‘낯섬’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만 상인들을 통해 느끼는 대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친정 가족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매체의 보도처럼 딸들이 타이상의 ‘현지 처’가 되어 나중에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물론 아순(여, 40대)의 사례처럼 실제로 타이상의 ‘현지 처’였다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구이저우성 출신인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선전으로 가서 당시 사장이었던 남편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아순보다 16살 연상인 남편은 아순에게 컴퓨터를 직접 가르쳐 주는 등 자상하게 관심을 쏟았고, 아순은 그런 남편에게 안정감을 느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3년 동안 그와 관계를 이어 나갔고,<sup>14</sup> 남편은 그동안 대만의 부인과 이혼소송까지 벌여 결국 이혼을 하여 아순 곁으로 돌아왔다. 아순의 남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선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아순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순을 좋게 볼 리가 없었다. 둘째 아들은 아순이 ‘소문이 무성했던’ 선전을 떠나길 바랐고, 아순은 대만으로 향했다. 아순의 대만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의 전처나 아들들, 시어머니는 아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으며, 아순은 외로웠다. 아순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여러 번 유산을 했고 이후 제도의 개정으로 대만에서 노동권이 주어지자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요컨대, 1990년대 양안교류의 제도화와 더불어 등장한 타이상-대륙배우자의 중기 양안결혼은 이전의 초기 양안결혼 룽민-대륙배우자의 결혼과 비교했을 때, 지인의 소개나 자유연애<sup>15</sup>로 ‘중국대륙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부부의 연령 차이도 룽민-대륙배우자의 결혼보다는 적게 나는 편이다. 비단 ‘대만인’에 대한 대륙인들의 고정관념과 친정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애기간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았기에 상대적으로 결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초기 양안결혼이 양안결혼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결혼 초에는 대륙배

<sup>14</sup> 아순의 회고에 따르면, 남편은 아순과의 관계에서 아순이 혹시나 안좋은 소문에 휩싸일까봐 아순을 자신의 회사에서 지인의 회사로 옮기게 하였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비밀 연애를 하다가 공개하였다.

<sup>15</sup> 2003년에 대만에 온 메이쭈(40대, 광시좡족자치구)는 남편과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2008년에 대만에 온 샤오짱(40대, 장시성)은 남편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

우자와 룡민이 떨어져 살고 이후에 남편의 거주지인 대만으로 배우자가 이주하는 형태였다면, 중기 양안결혼은 남편의 일자리가 아직 대륙에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가족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티엔티엔은 남편이 대만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어 함께 귀국했지만, 아짜오나 아홍은 남편이 대륙의 일자리를 옮기지 않았었거나 옮겼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했었고, 아순의 남편 역시 대륙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대륙을 왕래하며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양안결혼 가정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과 출산, 교육 때문에 다양한 가족 거주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아짜오처럼 대만의 의료시설이나 아이의 대만 호적 때문에 대륙배우자가 아이를 대만에서 낳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어릴 때는 대륙에서 가족이 함께 살다가 학령기에 대륙배우자와 아이들만 대만에 정착하기도 한다.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중국에서 다닌다고 할지라도 중국 대륙 현지의 학교보다는 타이상 학교나 국제학교를 보낸다. 샤오루(여, 40대)는 아이들을 광둥의 타이상 학교에 보내다 학비가 너무 비싸 대만으로 이주한 경우다. 타이상 학교는 대만의 학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결국 생활비나 학비가 저렴한 타이베이에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의 장래에 나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기 양안결혼 또한 기존의 아시아 결혼이주의 맥락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중기 양안결혼의 당사자들이 ‘친밀한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의 이주보다 부부의 친밀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도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이들의 가족관계가 출산과 양육에 맞춰져 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원래 가졌던 일자리를 포기하는 등 (서구) 중산층 가족의 젠더 규범과 가깝다.

중기 양안결혼 대륙배우자들에게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정주하게 되는 대만은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의 뿌리이자 자신의 ‘시가’로 다른 친밀성을 제공한다. 이 대륙배우자들에게 중국과 대만은 친정과 시가로 흔히 대비되는데 이는 ‘한쪽은 뿌리이며 한쪽은 터전’으로 ‘둘 다 소중한 나의 집’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초기 양안결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또한

이들의 남편들은 꼭 외성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기 대륙배우자들의 사회관계는 남편의 동향회와 연결된다기보다 대륙배우자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사회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은 시간에 지방정부의 신 이민 강좌를 듣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계발을 하기도 한다.

언론에는 주로 초기 양안결혼부부들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대만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중기 양안결혼부부들이 매우 적은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안결혼이 이 중기 양안결혼에 속하며 대만인의 자녀를 낳고 대만에 정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만 이민정책의 ‘바람직한’ ‘대만인의 어머니’ 되기 정책<sup>16</sup>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이들은 대만에 남아 대만의 시민권을 획득한다. 이들이 대만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힘을 쏟느라 되도록 기다려서 획득하는 편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잦아지면서 제3국에서 대만 사람들을 만나 연애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는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양안결혼의 추세로서 대만에 정착하기보다 제3국에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만 신분증을 얻으려는 생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양안결혼의 추세와 실생활은 기존의 초중기의 양상과 또 다르게 나타난다.

## V. 새로운 양안결혼의 가능성: 제3국에서의 만남

1970년대 말 중화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문을 열었지만,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1996년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유학기금위원회가 설립되어 국비 장학생을 선발했다. 2000년대

<sup>16</sup> 이 정책은 2003년부터 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법적-제도적으로는 대륙배우자의 대만 이주를 제한하고 배우자들이 아이를 출생하고 양육하는 등 대만인의 어머니로 남아 있을 때에 한해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문경연, 2019b).

중반부터는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들이 많아졌다(안인혜, 2009). 미국 서부로 석사과정에 진학한 샤오안(여, 30대, 산시성)도 그 유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샤오안은 이후 미국에서 취직하며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대학원 시절 만났던 대만 남성(남, 30대, 타이베이)과 연애를 시작했다. 이 남성은 미국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 미국 병원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다. 샤오안과 그의 남자친구는 모두 미국에 일자리가 있어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미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샤오안 커플처럼 ‘제3국에서의 양안 연애/결혼(Chinese-Taiwanese Couple in a third country)’은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중국도 대만도 아닌 제3의 나라에서 연애나 결혼이 이뤄지는 최근의 흐름을 의미한다. Tseng(2017)에 따르면, ‘제3국에서의 양안결혼’이 특이한 이유는 첫째, 이 흐름이 중국인들의 구미로의 해외 이주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만인과의 만남 및 결혼으로 이어졌다는 점, 둘째, 이 양안결혼의 흐름은 더 이상 결혼을 하는 중국 여성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덜 받은 여성이 아니라는 점, 셋째, 이 결혼에서 중국 정부나 대만 정부가 이들의 체류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이 개입되는 점을 꼽았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만난 양안결혼부부를 연구한 그에 따르면, 이 부부들의 학력은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이었으며, 연애결혼이 대부분이었다. 비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나 대만 대표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대만 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Tseng(2017)은 이 부부의 결혼 선택을 편의에 의한 결혼(marriage for convenience)이라고 개념화한다.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중국이나 법-제도의 규제가 심한 대만 대신 제3국을 선택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더한다는 것이다.

샤오란(30대, 여, 상하이)과 라오레이(30대, 남, 타이베이) 커플은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미국에 남아 있게 되었다. 샤오란도 샤오안처럼 미국에서 석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라오레이를 만나게 되었다. 샤오란과 라오레이는 약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만에 4-5번 정도밖에 가보지 않았다. 샤오란에게 대만에 대한 기억은 자연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좋은 기억뿐이

다. 이미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고 아이도 미국에서 낳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지난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대만에 가 본 적은 손에 꼽는다. 샤오란에게 대만에 대한 기억은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것이다. 가끔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대만의 시부모님을 놀라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대륙과 대만의 문화적 배경이나 자신과 시부모님의 시대적 성장 배경이 달라서라고 생각한다. 혹은 시부모님과 가깝게 살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 이해하기도 한다.

샤오란은 대만에도 대만사람과 결혼한 중국 출신 대륙배우자들이 살고 있다고 들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과 대만의 대륙배우자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만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대륙배우자들과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대륙배우자들만이 이주자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자신과 남편 모두 이주자들이다. 샤오란 부부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중국과 대만을 종종 들르기는 하겠지만 주 생활터전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대륙배우자들에 대한 모임은 없다. 다만 중국 대륙 출신들과 대만 출신, 홍콩 출신들이 같은 학교 유학생들이 아닌 이상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샤오란도 몇몇 중국 출신 친구들이 있지만 남편과 함께 대만 출신 친구들과 주로 모임을 많이 갖는다. 아이를 낳은 뒤로는 더욱 그렇다. 미국에 오래 살게 될수록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라오레이는 대만에서 중화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은 마지막 세대이며,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sup>17</sup> 라오레이가 근래에 미국에서 만난 대만 유학생들은 확실히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 중국 대륙 출신들과는 잘 만나려 하지 않는다. 라오레이 자신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여러 인종들을 만나며 중국대륙 출신 사람들도 함께 미국에서 살아

<sup>17</sup> ‘대만인이 통치하는 대만’을 강조하는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2000년부터 대만 정부는 더욱 대만 의식을 국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여 중국 관련 내용을 모두 ‘대륙’이 아닌 ‘중국’으로 바꾸었으며 대만 지역 위주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문경연, 2019b; 양태근, 2012).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결혼 전까지 중국을 방문해보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 상하이를 가보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라오레이에 따르면, 자신이 대만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대만인 정체성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으나 이미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양안결혼의 흐름은 중국에서 대만으로만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흐름도 생겨났다. 이 결혼의 특징으로는 더 이상 부부간의 연령차나 학력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 부부의 학력이 높다는 점, 가능한 한 제3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점, 모두가 이주자이기 때문에 제3국의 이민제도에 더 관심을 가질 뿐, 대만과 중국의 양안결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양안결혼의 흐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모두 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구세대(홍콩, 대만)와 신세대(중국대륙) 이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새로운 양안결혼의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혼의 성격을 규정짓기는 어렵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고려해 본다면 이들은 꼭 대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제3국의 양안결혼부부는 굳이 중국이나 대만 신분증을 획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부부의 중국 국적이나 대만 국적은 친지나 가족을 방문할 때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VI. 나가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안결혼은 ‘대륙배우자의 대만 이주 시기와 결혼 유형’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초기 양안결혼은 양안 교류가 허용된 1987년부터 나타난 룡민과 대륙배우자의 결혼을 말하며, 중기 양안결혼은 1992년 양안 교류가 양안 조례로 제도화되면서 시작된 대만 상인과의 연애결혼을 지칭한다.

표 2 양안결혼의 유형별 특징

결혼 유형		시기	특징
초기 양안 결혼	소개혼	1987년 이후~	퇴역군인(릉민)과 재혼 배우자들(노부소처老夫小妻형, 70~80대 할아버지와 40~60대의 여성들) 같은 고향인 경우가 많음. 국공내전과 관련 있음 돌봄결혼, 대만에 정착 중국 호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중기 양안 결혼	주로 연애혼 (가끔 소개혼)	1992년 이후~	대부분의 양안결혼이 여기에 속함 타이상과 현지 처, 타이간과 여공들 인터넷 통신이나 친구의 소개 연령 차가 적은 편 생활여건에 따라 중국/대만에서 살아가지만, 대체적으로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대만에 정착 대만 신분증을 얻으려면 중국 호적을 포기해야 함
새로운 양안 결혼	연애혼	2010년 이후~	제3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짐 대만에 정착하기보다 제3국에 거주 요즘 나타나는 새로운 양안결혼의 추세 대만 신분증을 얻으려는 생각 거의 없음

출처: 문경연(2019b)에서 재구성.

새로운 양안결혼의 가능성은 201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유학이나 취업으로 제3국에서 만난 연애결혼을 말한다. 양안결혼의 유형별 특징을 간략하게 결혼 유형과 시기와 함께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양안결혼의 역사에서 이 유형별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주자들의 공통된 기억과 경험이 같은 ‘대륙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초기 대륙배우자들이 이주 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과 결혼을 경험했다는 점, 외성인 남편을 만나 같은 고향, 같은 언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했다는 점, 대만에서의 가족이 외성인 남편밖에 없다는 점은 꼭 대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반면 중기 대륙배우자들은 주로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를 겪었고 대만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 ‘대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녀를 낳고 학령기가 되면 대만에 정착하면서 대만에 다양한 방식으로 속하기 때문에 초기

대륙배우자에 비해 떠나온 친정에 대한 거리감을 가진다. 중기 양안결혼부부와 같은 연애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외국의 경험이 많은 최근의 양안결혼 부부들은 굳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대만의 틀이 아닌 외국/중국/대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활터전을 향유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제3국에서의 생활이며 중국이나 대만의 상황은 앞선 초중기 대륙배우자들에 비해 좀 더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안결혼의 역사에서 대륙배우자 분화 과정은 이후 대만 정부의 양안결혼에 대한 정책변화와 맞물려 대륙배우자들의 모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만 정부의 이민정책 속에서 ‘대륙배우자’는 동일한 집단으로 다른 결혼이주자와 구별되면서 법적-제도적 시민권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이 유형에 따르면 조금씩 ‘구별’의 경험이 다른데, 초기 대륙배우자들이 재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만 사회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당해 왔다면 중기 대륙배우자들은 ‘대만인의 어머니’로 불리며 시민권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새로운 양안결혼 부부들은 오히려 이런 대만의 정책에 자유롭다.

또한 ‘중국’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만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온 초기 대륙배우자들은 모임을 만들며 대만의 구분화된 이민정책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중기 대륙배우자들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린다는 이유로 초기 대륙배우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별 대륙배우자들의 정착과정은 대륙배우자들의 조직화와 지형도,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결혼이주에서 이주자들의 이주배경과 결혼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공통된 기억과 정체성’과 더불어 결혼이주의 조직화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안결혼의 유형에 따라 이들이 대만에서 이뤄 나가는 가족의 형태도 다르다. 초기 양안결혼이 이루는 가족은 재혼가족으로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에서 돌봄이 교환된다면, 중기 양안결혼이 이루는 가족은 (서구) 중산층의 가족 규범에 가깝다. ‘새로운’ 양안결혼이 이루는 가족은 오히려 중국도 대만도 아닌 제3국까지 이동성이 확장된 형태의 가족에 가깝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새로운’ 양안결혼가족의 젠더 관계나 ‘모국’에 대한 관념은 이전의 양안결혼과 다르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이후 양안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에 치달으면서 초기 양안결혼에서 ‘혼자 남은’ 할머니 대륙배우자들은 대만에 홀로 남기를, 중기 양안결혼의 대륙 배우자들은 ‘대만인’으로 자란 자녀들과 대만에 남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양안결혼’의 추세가 늘어나면서 중국이나 대만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후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대륙배우자들은 ‘중국 친정 나들이’가 어려워졌고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일도 대폭 줄었다. ‘새로운 양안결혼’도 오히려 제3국의 터전이 아니라 대만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륙배우자들의 이주 동기나 결혼유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될 연구 과제다.

투고일: 2019년 12월 15일 | 심사일: 2020년 1월 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7일

## 참고문헌

- 공유식·강준영. 2017. “대만 차이잉원의 탈중국화정책: 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라문화』 54호, 389-412.
- 김미란. 2010. “타이완의 ‘대륙상상’과 양안 결혼: 대륙출신 배우자에 대한 시민권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54호, 271-314.
- \_\_\_\_\_. 2013. “타이완상인(臺商)의 상하이 이주와 중산층문화.” 『아시아문화연구』 29호, 1-33.
- 김윤태. 2016. “재중 대만인의 중국사회 적응과 발전: 초국가적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0권 3호, 87-113.
-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동연구총서』.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호, 10-37.
-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한국여성학』 24권 1호, 121-155.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한국사회학』 48권 1호, 300-344.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에서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권 2호, 71-112.
- \_\_\_\_\_. 2019a. “양안결혼 이주남성의 ‘젠더 전복’: 젠더 역할, 노동권, 시민권을 중심으로.” 『중국사회과학논총』 1권 2호, 120-136.
- \_\_\_\_\_. 2019b. “아래로부터의 양안(兩岸)관계: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의 정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경희. 2017. “호주 한인 ‘1세대’의 이민에 대한 연구: 이주체계접근법과 이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7호, 117-156.
- 박미정·엄명용. 2015.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권 2호, 33-60.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안인혜. 2009. “중국 해외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중국학논총』 25호, 161-178.
- 양태근. 2012. “민주화와 본토화의 이중주: 대만의식과 대만 사회 운동의 성장 과정.” 『중국근현대사연구』 55집, 193-225.
- 왕즈홍 외. 광규환 외 역. 2017.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건다: 타이베이를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 산지니.
- 이용승. 2014. “국제 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8권 1호, 119-144.
- 이혜웅. 2014. “결혼이주여성의 본국/한국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6권 2호, 1-124.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권 5호, 258-298.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범위.” 『현대사회와 다문화』 2권 1호, 1-45.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6호, 894-913.
- 천광싱. 2003. 『제국의 눈』. 창비.
-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 저.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이론 17). 여이연.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 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권 1호, 195-243.
- 王偉男·張賢樺. 2017. “落葉歸根, 抑或落地生根?: 在台陸配群體對未來歸宿的可能選擇.” 『閩台關係研究』 4호, 8-10.
- Constable, Nicole. 2005. *Cross-Border Marriage: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u, Melody. 2012. "Transnational Marriages as a Strategy of Care Exchange: Veteran Soldiers and Their Mainland Chinese Spouses in Taiwan." *Global Networks* 12(2), 233–251.
- Lu, Melody and Wen-shan Yang, eds. 2010. *Asian Cross-border Marriage Migration: Demographic Oatterns and Social Issue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Momesso, Lara and Lee Chun-yi. 2017. "Transnational Mobility, Strong States and Contested Sovereignty: Learning from the China–Taiwan Context."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6(4), 459–479.
- Oishi, Nana. 2008. "Family without Borders? Asian Women i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if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4(4), 54–79.
- Palriwala, Rajni and Patricia Uberoi. 2008. *Marriage, Migration and Gender*, 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dia Pvt Ltd.
- Sassen, S. 2002. *Global Networks, Linked Cities*. London/New York: Routledge.
- Shen, Hsiu-hua. 2005. "'The First Taiwanese Wives' and 'the Chinese Mistresses':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in Familial and Intimate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Global Networks* 5(4), 419–437.
- Tseng, Yu-chin. 2017.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Migration Trajectories of Chinese–Taiwanese Couples in Third Countrie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6(4), 413–435.
- Yeoh, B. and K. Willis. 2005. "Singaporeans in China: Transnational Women Elites and the Negotiation of Gendered Identities." *Geoforum* 36: 211–222.

#### 웹자료

야후 타이완 뉴스 중 중국시보 <https://tw.news.yahoo.com/>(검색일: 2019. 12. 4).

이민서 홈페이지 <https://immigration.gov.tw/>(검색일: 2019. 12. 5).

## Abstract

## Cross-strait Marriage and the Emergence of 'Mainland Spouse': Focusing on the Differentiation by Migration Period

Kyungyun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at how cross-strait marriage began and chang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the migration experience of marriage migrants. Cross-strait marriage, which refers to the marriage migration between the Chinese and Taiwanese, has been emerged from 1987 with the opening of Taiwan-China exchange. Previous studies on the history of cross-strait marriage have suggested how policies related to cross-strait marriage have changed in the context of cross-strait exchange.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assert that cross-strait marriage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time of migration and marriage type of the 'Mainland spouse'. Early cross-strait marriage is characterized by the coupling of the veterans and Mainland spouses who are from the same hometown. The middle cross-strait marriage began with the entry of Taiwanese businessmen (*Taishang*) into China, and when their children become school age, they settled in Taiwan. 'New' cross-strait marriage is a recent phenomenon. They are married and living in another country. This differentiation shows that 'Mainland Spouses' is not a single category and can be divided into at least three groups, depending on their migration context, motives and family type. This cross-strait marriage case suggests that the longer the history of marriage migration, the different divisions may occur depending on the migration background within the marriage

migrants group.

**Keywords |** China and Taiwan, Cross-strait Marriage, Marriage Migration, Differentiation, Mainland Spouse